

제33회(2021년) 아산상 부문별 수상자 현황

부 문	수상자(단체)	주요 공적내용
아 산 상	김우정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캄보디아 저소득 환자들의 무료 진료와 치료를 위해 2007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지역에 헤브론병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음. 헤브론병원은 현재 11개 진료과, 30명의 전문의, 93개 병상을 갖춘 종합 병원으로 성장하여 월평균 5,000여 명의 저소득 환자들을 진료하고, 매달 60여 건의 수술을 시행하는 지역사회의 주요 의료기관으로 자리 잡았음. 이외에도 간호대학 설립, 전공의 프로그램 운영 등 현지 의료인 양성을 통해 캄보디아 의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음.
의료봉사상	최영아	2001년 내과 전문의 취득 후 노숙인 등 의료보험이 없는 취약계층을 무료 진료하는 다일천사병원, 요셉의원, 다시서기의원, 도티기념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봐왔으며, 2017년 도티기념병원이 폐원하자 인근의 공공의료기관인 서울시립 서북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기존에 돌봐왔던 환자들을 계속해서 진료해오고 있음. 또한 여성 노숙인들에게 주거와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더하우스’를 설립하고 취약계층의 재활과 회복을 돕는 ‘회복나눔 네트워크’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음.
사회봉사상	권순영	재미교포 식품영양학자로 기아로 고통 받는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의 현실을 목격하고 2003년 비영리단체 ‘영양과 교육 인터내셔널’을 설립하여 콩 생산을 기반으로 한 현지 기간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왔음. 아프가니스탄에 ‘지속 가능한 콩 산업’을 창출해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현지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사업 및 무료급식 사업 등을 전개하면서 사회공헌 활동 역시 꾸준히 이어오고 있음.
복지실천상	양춘자	대안양육가정인 대구SOS어린이마을에서 24년간 근무하며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보호·양육하는데 헌신하고 있음.
	장현봉	고성정신요양원 생활재활과장으로 지난 27년간 생활인들의 사회복귀 훈련, 일자리 연계,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활동 등을 다양하게 전개해왔음.
	정혜숙	아동복지시설 동성원에서 31년간 근무하며 500여 명의 영유아를 보육 및 교육시키는 등 아동 양육과 교육, 자립에 기여하였음.
	조미숙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으로 발달지체 영아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 확대 등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38년간 헌신해왔음.
	황태민	부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지원팀 팀장으로 지난 27년간 국내 시각장애인 스포츠 발전과 시각장애인 대상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음.
자원봉사상	키니스장난감	은퇴자들이 주축이 되어 무료 장난감 수리 봉사를 하고 있으며, 기부 받은 장난감들은 수리 후 사회복지시설 및 지자체 등에 기부하고 있음.
	김문규	1994년 장애인시설 봉사활동에서 시작해 14개의 봉사단체 연합인 ‘한국희망집짓기운동본부’를 창립하고 봉사단원들과 함께 복지시설 급식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에 참여하고 있음.
	박정순	1980년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시작으로 의용소방대, 적십자 활동, 김장봉사, 독거노인을 위한 밑반찬 조리, 재난지역 복구 활동 등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해왔음.
	이요셉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국내 비영리단체와 함께 아프리카의 빈곤, 질병, 재난 등의 현장을 촬영하고 구호가 필요한 상황을 알리는데 기여해왔음.
	이유근	지난 42년간 제주도 의료발전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기부활동에 기여하였고 제주지역 지역사회 자원봉사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공헌했음.
효행·가족상	김미애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으로, 치매 증상이 있는 시어머니를 돌보며 가족들을 부양해왔음. 웃음치료사와 레크리에이션 강사 자격증을 취득해 복지관, 요양원 봉사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음.
	송경준	복지시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선천적 장애가 있는 아동 1명과 비장애 아동 1명을 공개 입양해 양육하면서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해왔음.
	이명옥	38년간 시부모와 8남매를 부양하고, 선천성 구순구개열로 태어난 아들의 치료를 위해 헌신해왔음. 이외에도 25년 간 새마을 부녀회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음.
	임정숙	남편과 결혼 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시부모를 정성껏 부양했고, 다섯 자녀를 양육하며 46년간 화목한 가정을 이끌었음.
	황일용	대가족의 만며느리로 직장생활을 하며 시조모를 10년 동안 모셨고, 44년간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면서 95세 시모를 보살펴왔음.